



광주 자원회수시설 2차 공모도 무산...결국 3차 공모로

후보지 3곳 모두 선정 절차 보류...사업 차질 우려
'先자치구 신청 後광주시 주도 추진' 방식으로 전환
羨시장 "1년 정도의 여유 시간...2030년 가동 가능"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 2차 공모도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생활 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2030년 자원회수시설 가동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동하 동구구청장은 11일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구나 관역별이 아닌) 광역자원회수 시설설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광주시에 직접 신청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 후보지 신청장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 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 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입지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 시설축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4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때 200여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200여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 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 들어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 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6개소가 접수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리 등 3개소가 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 후보지 3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구 매월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어렵다는 점, 북구 장등동은 시설 공사는 가능하나 송전탑 이설 문제가 있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광산구 삼거리동은 사회복합시설을 1세대로 본 것에 대한 세대수 적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개 후보지 모두 평가 절차 보류 결정을 내렸다.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까지 '빈손'으로 마무리되고 3차 공모로 이어지면 서 결국 그동안 행정력·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0년 생활 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에 맞춰 자원회수시설을 2029년까지는 준공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남은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강기정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2000년이 다가오면서 마음은 급하지만 아직 1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법적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방식' 발표 1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7월 무더위 지속...“‘쉼’ 있는 전남서 힐링하세요”

전남도,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이달의 관광지 4곳 추천

전남도가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 트렌드 키워드인 '쉼'을 주제로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4곳을 7월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장, 목공예문화체험장을 갖춘 산림치유 휴양림이다.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진 숲길을 거닐며

싱그러운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뻗은 나무 사이에 숙박시설이 조성돼 숲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는 해식에 절경과 어우러진 목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색 산책로로 유명하다. 산책로는 2개 코스로 이뤄졌다. 용머리탐방로(931m)로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오른쪽 해안동굴탐방로(768m)로 가면 태평

양전쟁 때 만들어진 해안동굴을 둘러보며 역사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에 몸을 담그며 신체의 치유를 돕는 프랑스 전통 미용 기법 '탈라소 테라피' 체험시설이 마련된 곳이다. 16개 해양 치유 요법 시설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사와 함께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산림자원과 의료를 결합한 국내 유일 통합의료 기반 치유시설이다. 억불산과 어우러진

독량반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치유 프로그램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장흥 물축제(8월 27일부터 개최된다. 탐진강의 청정 수자원을 테마로 '워터락(樂)폴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산림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며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전남의 '쉼' 있는 여행지에서 몸과 마음이 휴식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Today

- 인터뷰·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5면
- 푸드탐방·무등산권역 로컬음식 13면
- 양현중, 리그최초 400경기 선발 16면

'역대 최장' 금리 3.50% 동결

기준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도 시사

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는 동결 결정과 함께 의결문에서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과 기준금리 인하 논의의 가능성 등도 동시에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금통위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이날까지 1년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22일)까지 고려하면 3.50%는 1년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동결 기간 1년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9일~2017년 11월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방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숭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